

# 서울시, '시민안심귀가 지원 강화' 정책 추진 '안심이앱' 개편... 긴급알람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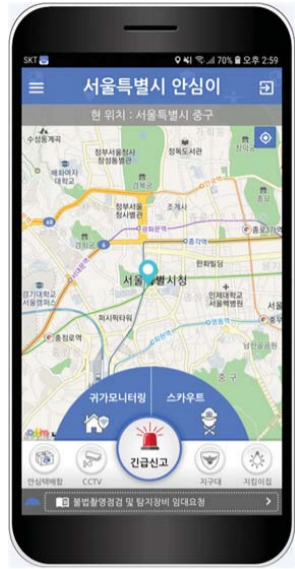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 신설  
주변 사건 발생 시 긴급메시지  
귀가스카우트 실시간 예약

서울시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시민안심귀가 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대표적인 안심귀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안심이앱' 서비스 제공 5년 만에 전면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다.

안심이앱은 자치구 CCTV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 전역에 설치된 4만대 CCTV와 안심이앱을 연계해 안심귀가 관제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안심귀가앱이다. 2017년 4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현재 서울시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안심이앱은 회원 수 10만6448명, 다운로드수 17만4774 회를 기록했다. 2019년 6월에는 안심이앱을 이용하던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10분 만에 성범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안심이 앱 이용 예시. /서울시

가 증가하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안심이앱 이용자 220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벌여 요구사항을 반영,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개편 내용은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 신설 ▲긴급알람서비스 신설 ▲긴급신고 방법 확대 ▲안심귀가 스카우트 실시간 예약 등이다.

안심귀가택시는 이용자가 별도로 정

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택시 승차차 시각, 택시 정보 등 주요 사항을 25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승차차 택시 정보가 자치구 CCTV관제센터로 전달되고, 전담관제사가 안심귀가 상태를 모니터링한 뒤 지정된 보호자에게 승차차 정보를 알리게 된다.

긴급알람서비스는 전자발찌 훼손 등 관련 사건 발생 시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안심이앱 이용자에게 긴급메시지로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간 위험감을 느껴 안심이앱으로 긴급신고를 하려면 화면을 터치하거나 휴대전화를 흔드는 방식을 사용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볼륨 및 전원버튼 등으로 다양하게 위험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안심이앱을 통한 안심귀가스카우트 신청예약 시스템도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특정시간(오후 9시 30분 ~ 익일 00시 30분)에만 예약이 가능했다. 실시간 예약이 되면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듯이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상태를 안내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교통공사와 SK텔레콤 관계자들이 한국철도학회에서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 '철도 기술상' 수상

서울교통공사·SK텔레콤 공동연구  
혼잡도 표준편차 30% 이상 줄여

서울교통공사는 SK텔레콤과 공동연구한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이 '2021년도 철도 10대 기술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하며,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 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수여된다.

이번에 상을 받은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은 지하철 한 칸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탑승했는지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카드 데이터로 집계한 총 탑승인원 등 열차운행 정보와 SKT의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합쳐 열차별·칸별·시간대별·경로별 혼잡도를 분석해 알려준다.

공사는 작년 6월부터 지하철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적용해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하철 2호선(서울대입구역~교대역 구간)의 시간대별 혼잡도 표준편차가 최대 30% 이상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향후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지하철 1~8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계량기 동파 원인, 대부분 보온 미비"

서울시 작년 계량기 동파사태 분석

서울시는 16일 작년 발생한 계량기 동파 사태를 분석한 결과 80%가 보온 미비가 원인이었다고 파악된다며 올 겨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파 예방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총 1만895건의 계량기 동파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497건과 비교해 22배 급증한 수치다. 2020년 동파된 계량기는 서울시 수도계량기 228만개의 0.4%에 해당하며, 계량기 교체에 투입된 비용은 4억6000만원이었다.

시는 올해 5월 개정된 수도 조례에 의해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



가 파손되거나 동파돼 교체할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량기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될 때에는 계량기대금은 물론 교체 비용, 봉인대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구경 15mm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대금은 2만8000원이고, 교체비용을 합한 금액은 4만2000원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내달 31일까지 선착순 접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비용을 비롯해 폐업지원 컨설팅, 재창업·취업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사업자등록증상사업장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올해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정제한업종이나 자가건물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시는 사업 정리를 위한 '점포 원상복구 공사비', '부동산 중개수

료', '사업장 양도 공지(홍보)비용'을 포함해 밀린 임대료 납부(최대 3개월)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정리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업 정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시설과 집기 처분 방법도 알려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관리, 개인신용관리 컨설팅도 해준다.

시는 폐업 후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원인 분석과 신규 아이템 발굴, 비즈니스모델 점검 등을 지원해 실패를 또 겪지 않도록 시

작부터 꼼꼼하게 챙겨주기로 했다.

창업이 아닌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서울시나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 등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 된다. 시는 폐업이라는 큰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해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상처를 극복,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하면 되고,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도시형 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 기업 매출 40% ↑

서울시 2019년부터 44개 기업 지원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도시형 소공인 기업 매출액이 4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형 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은 16개 기업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37% 상승한 1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도시형 소공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해 지원 금액(평균 2500만

원) 내에서 시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판로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4개 기업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해돋이 / 07:14 | 해질 / 17:20

오늘의 날씨

11월 17일 (수)  
음력 : 10월 13일

수도권 날씨  
**2 ~ 1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3/12  
동두천 -2/13  
파주 -3/12  
가평 -3/12  
서울 2/13  
양평 -1/13  
인천 4/12  
수원 2/12  
용인 2/12  
평택 0/1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반도체 산업 강화 나서...2500억 달러 법안 처리계획  
▲모더나, 중저소득 국가와 백신 공급 계약 합의 임박 /사진 뉴스스

▲시진핑 "대만독립세력 레드라인 넘으면 단호 조치"  
▲러 "우주 파편, ISS 궤도서 제거"...미·러 우주당국 회동 예정



▲김정은 "삼지연 새로운 혁명의 출발점"...한달여만 공개 활동 /사진 뉴스스  
▲머스크, 테슬라 지분 1조원어치 또 팔아